

김진우 '위기의 KIA' 구했다



넥센전 7.10이닝 7탈삼진 2실점 '호투'

롯데·넥센 원정 6연전 3승 중 2승 책임

‘커브의 달인’ 김진우가 연승 행진으로 위기의 팀을 구했다.

KIA 타이거즈가 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1위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6-4로 이기며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선발 김진우는 7.1이닝을 2실점(7피안타 3사사구)으로 막으며 시즌 5승에 성공했다. ‘폭포수 커브’로 넥센 강타자들의 방비를 헛뜯게 하면서 7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4일 롯데와의 경기(6이닝 2실점)에 이어 롯데·넥센과의 험난했던 원정 6연전에서 거둔 3승 중 2승을 김진우가 책임졌다.

상대의 실책으로 KIA가 1회부터 손쉽게 선취점을 뽑아냈다. 톱타자 이용규가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김주찬의 땅볼을 처리하던 넥센 유격수 신현철이 공을 빠트리면서 1사 2·3루. 김주찬의 도루를 저지하려던 포수 허도환의 송구실책까지 나오면서 이용규가 홈을 밟았다. 최희섭의 1타점 2루타가 이어지면서 KIA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3회에는 승기를 잡는 홈런 한방이 터져나왔다. 2사 2루에서 4번 타자 나지완이 나이트의 3구제 싱커(140km)를 공략해 중앙탑장 넘어가는 비거리 120m의 시원한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나지완은 전날 경기에서 이어 이틀 연속 한방을 날리며 시즌 7호포를 기록했다.

4-1로 앞선 6회에는 김주형의 1타점 적시타가 나왔다. 안치홍과 차일목의 연속 안타로 무사 1·3루. 김주형이 좌전안타를 때려내며 타점을 추가했다. 이용규의 적시타를 더해 KIA가 6번째 점수를 만들었다.

KIA 타자들은 득점 지원과 함께 호수비 퍼레이드로 김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김진우가 1회 볼넷과 안타로 맞은 무사 1·2루. 2루수 안치홍이 이택근의 안타성 타구를 뛰어올라 잡아내며 라

인드라이브 아웃을 만들었다. 스타트를 끊었던 2루주자 서건창까지 잡아내며 투아웃. 김진우는 4번 박병호를 투수 앞 땅볼로 막으며 1회 위기를 넘겼다.

이후 김진우의 안정된 피칭이 이어졌다. 4회에는 세 타자 연속 탈삼진 쇼를 벌이기도 했다.

5-6회에는 김진우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5회 선두타자 김민성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 위기가 찾아왔지만 두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우며 1실점으로 막았다. 번트 안타로 출루시킨 서건창은 투수 견제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 했다.

6회 1사에서 연속 안타를 허용한 김진우가 유격수 앞 불규칙 바운드로 강정호까지 내보내며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김

진우는 이성열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김민성을 유격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6-1로 앞선 8회 선두타자 장기영에게 2루타를 허용한 김진우는 이택근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고 1사 2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계투진으로 오른 송은범이 주자를 들여보내면서 김진우의 자책점은 2점이 됐다.

8회 계투진 신승현·송은범의 난조로 6-4까지 추격을 허용한 KIA는 9회에도 앤서니가 2사 2·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박병호를 상대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으면서 모처럼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지난 5월18일 LG전 이후 첫 연승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넥센과 기아의 경기. 5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기아 선발 투수 김진우가 1루 주자 서건창을 견제사 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올 시즌엔

올스타 몇명이나 뽑힐까

팬투표 오늘부터 시작

프로야구의 ‘별 중의 별’을 뽑는 올스타전 투표가 10일 시작된다.

2013 프로야구 올스타전(7월19일·포항야구장)에 출전할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팬 투표가 10일(오후 2시)부터 오는 7월7일까지 28일간 계속된다.

올 시즌 투수 부문이 선발과 구원으로 분리되면서 각 구단별로 11명씩 총 99명의 후보선수가 확정됐다.

팬 투표를 통해 양 리그의 ‘베스트11’이 선정되며 감독 추천 선수 12명이 추가로 선발돼 총 46명이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KIA에서는 꾸준한 피칭으로 에이스로 발돋움한 좌완 양현종과 마무리 앤서니를 비롯한 차일목(포수), 최희섭(1루수), 안치홍(2루수), 이병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김주찬·이용규·신종길(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이 올스타에 도전한다.

또 KIA는 넥센·LG·한화, 막내구단 NC와 함께

웨스턴 리그에 포함됐고, 삼성·SK·롯데·두산은 이스턴 리그에서 경쟁을 벌인다.

웨스턴 리그의 외야수

후보인 LG의 ‘적토마’ 이병규는 개인 통산 11번째 베스트, 두산 홍성흔은 통산 10번째이자 지명타자로서 최다 연속 시즌 타이거록인 6년 연속 베스트(83~88 김광민, 92~97 김기태) 기록을 노린다.

지난해 역대 최다 득표수(89만2727표) 신기록을 세운 롯데 포수 김민호도 7년 연속 올스타 무대를 두드린다.

지난 2009년 고졸 신인 첫 올스타 베스트에 선정되며 올스타전 최연소 기록(홀런·미스터 올스타)을 갈아 치운 KIA 안치홍에게도 5년 연속 올스타 도전이다.

인터넷 투표는 KBO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와 KBO 공식 소싱몰인 KBO 마켓 홈페이지(www.kbomarket.com), 9개 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KBO 프로야구 2013’을 통한 투표도 가능하다.

투표 횟수는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1인1일1회로 제한되며, 매주 월요일 중간점검 결과가 발표된다.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42만 원 상당의 비즈바이더드레 헤드폰 3개와 24만 원 상당의 powerbeats 이어폰 7개, 윌슨(Wilson)에서 제작하는 올스타 유니폼 상의 30벌이 경품으로 증정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36년만의 황금사자기 탈환 실패

준결승서 마산고에 1대 3패

광주 동성고의 황금사자기 탈환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동성고가 지난 8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마산고와의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제67회 황금사자기 준결승에서 1-3으로 저 결승진출이 무산됐다.

1회 선취점을 뽑았지만 추가득점에 실패하면서 1977년 이후 36년만의 황금사자기 패권 탈환이 실패로 돌아갔다.

동명이인 김민혁이 양팀 첫 타점의 주인공이 됐다.

동성고가 1회 톱타자 정규홍의 중전안타로 잡은 2사 1·2루에서 5번 김민혁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4회에는 마산고의 8번 김민혁이 중전안타로 2루에 있던 김민수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1-1을 만들었다.

동성고가 4회 2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뒤 5회 마산고 선두타자 박성준을 도루와 폭투로 진투시키며 역전을 허용했다.

7회 말 아쉬운 관전이 나왔다. 2사에서 동성고 3번 타자 이재무가 친 공이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던 중견수 뒤로 빠졌다. 홈까지 파고든 이재무의 발이 먼저 베이스로 향했지만 심판이 아웃을 선언하면서 동성고의 기회가 무산됐다.

결국 이어진 8회 1사 1루에서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이 강진호에게 1타점 3루타를 허용하면서 승부가 기울었다.

한편 8일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 광역권 일정이 시작됐다.

전라·충북권 1주차 경기에서는 순천 효천고, 광주일고와 각각 청주 세광고(3-2)와 공주고(3-1)를 꺾고 1승을 추가했다. 군산 상고는 대전고를 9-3으로 꺾었다.

진흥고와 화산고는 각각 천안 북일고(0-1)와 청주고(1-3)에 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연재의 진화, 요정에서 靑 여왕 다음엔...

아 선수권 후프·곤봉·개인종합 3관왕

8월 세계선수권 메달 청신호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9·연세대)가 2013 아시아선수권대회 후프·곤봉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선수권 대회 청신호를 밝혔다.

손연재는 8일(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대회 개인 종목별 결선 후프 종목에서 18.433점(D 9.300·E 9.133)을 획득, 2위 덩선웨이(중국·18.067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두 번째로 치러진 볼 종목에서 16.933점으로 4위에 머문 손연재는 세 번째 종목인 곤봉에서 18.400점(D 9.200·E 9.200)을 받아 덩선웨이(18.133)를 또다시 누르고 이날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지막 리본 종목에

서 18.167점(D 9.200·E 8.967)을 받은 손연재는 1위 덩선웨이(18.533점)에게 밀려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전날 한국 최초로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연재는 이날 종목별 결선에서도 금메달을 잇달아 따내며 실력을 뽐냈다.

올 시즌 앞서 출전한 네 번의 국제제조연맹(FIG) 월드컵에서 매번 종목별 메달을 목에 걸며 상승세를 탄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도 ‘멀티 메달’을 획득, 8월말 세계선수권대회를 향해 순항했다.

손연재는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맞춰 연기를 후프 종목에서 수구를 던져 몸으로 통과하는 고난도 기술 등 다양한 동작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해내 18.433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

애티튜드 피복에서 풍채로 넘어가는 고난도 복합 피

복의 연결도 매끄러웠고, 동작 하나하나에서 우아함이 묻어나는 연기를 펼쳐 이를 전 리본에서 받은 시즌 최고점과 동점을 이뤘다.

파트리치오 부안노의 ‘벨라 벨라 시뇨리나’를 배경 음악으로 한 곤봉에서도 특유의 발랄함으로 무장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쳐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볼 종목에서는 풍채를 할 때 손으로 바닥을 짚는 등 실수를 저질러 이번 대회 처음으로 16점대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손연재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맞춰 흑조로 변신한 리본 종목에서는 12회전 포에테 피봇 등을 깔끔하게 해내는 등 매끄러운 연기를 펼쳤으나 덩선웨이를 넘어설지 못해 은메달에 만족했다.

후프 종목별 결선에 나선 김윤희(세종대)는 후프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러 15.150점을 받았고, 볼 종목에서는 14.167점에 그쳤다.

이경은(세종대)-이나영(세종고)-김연정(청주중앙여고)-이지우(오금고)-양현진(이매고)으로 이뤄진 한국 단체 대표팀은 단체 복합 수구(불+리본) 경기에서 13.567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가 8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13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후프와 곤봉 종목별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